

# ‘잇몸 야구’로 버텨라... ‘그들’이 돌아올때까지

##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중위권 경쟁을 이어간다.

최근 1위 LG와 2위 한화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아래 순위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9일 현재, KIA는 시즌 성적 31승 30패 1무로 리그 7위를 기록 중이지만, 3위와 25경기, 4위와 2경기, 5위와 15경기, 6위와는 단 1경기 차에 불과해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반면, 연패에 빠질 경우 중위권 싸움에서 밀려날 위험도 공존하고 있다.

### 프로야구 팀별 순위 (9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38	25	1	0.603	0
2	한화	37	27	0	0.578	1.5
3	롯데	34	28	3	0.548	3.5
4	삼성	34	29	1	0.540	4
5	kt	33	29	3	0.532	4.5
6	SSG	32	29	2	0.525	5
7	KIA	31	30	1	0.508	6
8	NC	26	31	3	0.456	9
9	두산	25	36	3	0.410	12
10	키움	20	46	1	0.303	19.5

## 윤영철이 쏘아올린 희망, 홈 삼성戰 중위권 판도 변화 호기 물오른 최원준 선봉 최형우·위즈덤·오선우 막강화력 든든

지난주 6경기에서 4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KIA는 이번주도 삼성과 NC를 상대로 숨 돌릴 틈 없는 여름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5위 kt와 6위 SSG가 상위권 팀들과의 혈전이 예정된 만큼 KIA에겐 순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잇몸 야구’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간판 타자’ 김도영 등 주전들의 이탈 속에서도 KIA는 백업 선수들을 앞세운 실속 야구로 틈새를 채워가고 있다. 팀은 이들의 투혼을 앞세워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서 독심 있게 버티겠다는 각오다.

먼저 주중에 4위 삼성과의 홈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올 시즌 삼성에 2승 5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설욕전을 넘어 순위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양팀 간 승차는 단 2경기, 만약 스윙에 성공할 경우 중위권 구도를 흔들 수 있다.

다만, 삼성은 올 시즌 팀 타율 리그 2위(0.269), 홈런 1위에 올라 있는 강타선 팀이다.

최근 들어 타격 흐름이 다소 주춤한 것지만 장타력만큼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KI

A가 삼성 타선을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이번 시리즈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그나마 리그 타율 1위를 기록 중인 김성윤이 부상으로 빠진 점은 KIA로선 호재다.

이어지는 주말에는 8위 NC와의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상대가 하위권에 처해있지만, 방식은 금물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로 팽팽하다. 게다가 이번 시리즈는 KIA의 올 시즌 첫 창원NC파크 방문 경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NC파크는 지난 3월 29일 시설물 추락 사고로 폐쇄됐다가 지난달 말 재개장했다. 오랜만에 찾은 경기장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도 승부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반가운 건, 팀 전체 분위기와 컨디션이 점차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최원준이다.

그는 주간 타율 0.399(28타수 11안타)를 기록하며 팀 내 1위를 차지했다. 부진을 털고 공격에서 맹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여기에 최형우와 위즈덤, 오선우 등 주축 타자들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윤도현과 김호영이 공수 양면에서 활기를 불



최원준



위즈덤

〈KIA 타이거즈 제공〉

어넣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마운드의 안정이 팀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2.50으로 리그 주간 1위를 기록했다. 선발 윤영철이 지난 6일 한화전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리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불펜에서는 우완 영건

성영택이 기대 이상의 투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KBO리그 전반기는 이제 약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다. 잇따른 부상 속에서도 호랑이 군단이 ‘잇몸 야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생존력과 뒷심이 올 시즌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주홍철 기자

## ‘가장 뜨거웠던 최형우의 5월’ MVP 선물

# 역대 월간 MVP ‘최다·최고령’ 수상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해결사’ 최형우 선수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5월 월간 MVP의 영예를 안았다. 2017년 5월 이후 무려 8년 만의 수상으로 KBO를 대표하는 ‘살아 있는 전설’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통해 개인 통산 6번째 월간 MVP를 차지했다. 이는 양현종(KIA)과 박병호(삼성)가 보유했던 5회 수상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이다. (KBO 리그 월간 MVP 시상 정례회 기준 2010시즌 이후)

여기에 최고령 MVP 수상 기록까지 갈아치우는 쾌거를 이뤘다. 9일 현재 만 41세 5개월 24일인 최형우는 현 이호준 NC 감독이 2015년 5월에 세웠던 39세 3개월 29일의 기록을 넘어 KBO 리그 최고령 월간 MVP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5월 한 달간 최형우의 방망이는 뜨거웠다. 그는 타율(0.407), 장타율(0.721), 출루율(0.5

05), OPS(1.226)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또한, 안타 35개(공동 3위)와 타점 23개(5위)로 주요 공격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5경기에 출전해 10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했으며, 5월 13일 광주 롯데전부터 5월 30일 수원 kt전까지 16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KBO 리그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KBO 역대 2번째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과 역대 3번째 통산 2천500안타라는 대기록을 동시에 달성했고, 이에 앞서 5월에는 KBO 역대 네 번째이자 최고령 400홈런 고지를 밟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빼어난 활약으로 그는 기자단 투표 총 35표 중 19표(54.3%), 팬 투표 60만5천311표 중 12만1천124표(20%)를 얻어 총점 37.14점으로 월간 MVP에 선정됐다. /주홍철 기자



지난달 27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최형우가 5회말 역전 투런홈런을 날리고 있다. 최형우는 이 홈런으로 통산 2천500안타를 달성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제4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내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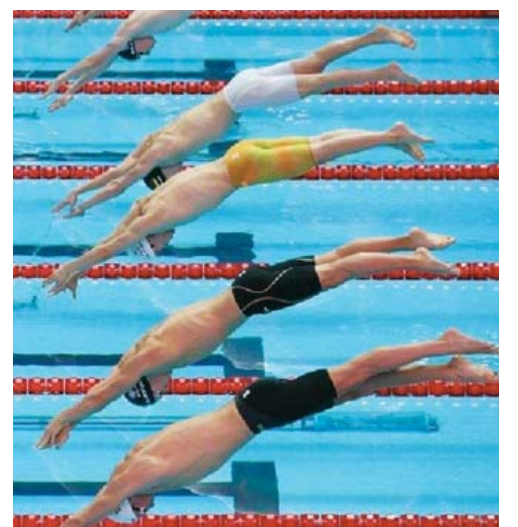
15일까지 4개 종목 1천500여명 참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제4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11-15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새대한국수영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 수영연맹이 주관하며 광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스위밍 등 4개 종목, 유년부부터 일반부까지 6개 부문에서 전국 1천500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신기록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창현 광주시 수영연맹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365일 더(The) 활력 넘치는 스포츠 관광 도시 광주’ 조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강기정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참가 선수들 모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줄



지난해 열린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경기 모습.

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 흥명보호, 오늘 쿠웨이트와 예선 최종전

# 마무리는 16년만의 ‘예선무패’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한국축구가 이제 ‘16년 만의 월드컵 예선 무패’로 북중미행 티켓을 놓고 이어온 치열했던 경쟁을 마무리하려 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X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 리그 B조 10차전 최종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미 지난 6일 원정으로 치른 이라크와의 9차전에서 2-0으로 이겨 승점 19(5승 4무)로 조 1위를 지키며 2위 요르단(승점 16: 4승 4무 1패)과 함께 북중미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11회 연속이자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한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의 대기록도 이어갔다. 반면, 승점 5(5무 4패)의 쿠웨이트는 B조 최하위 및 본선 진출 실패가 확정된 채로 방한했다.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최종 순위 정도다.

한국과 요르단이 나란히 16득점 7실점으로 골득실 차가 같아 한국이 쿠웨이트에 패하고 요르단이 이라크와 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2위로 이번 월드컵 예선을 마치게 된다.

한국은 쿠웨이트전에서 시원스러운 승리로 조 1위 수성은 물론 이라크 원정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한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를 펼쳐 보일려 한다.

아울러 16년 만의 ‘월드컵 예선 무패’도 바라본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부터 참가해 5승 1무로 3차 예선에 진출한 뒤 5승 4무를 더해 15경기 연속 무패(10승 5무)를 기록 중이다.

직전이었던 2022 카타르 대회 예선에서는 파울루 벤투 감독 지휘 아래 2차 예선 5승 1무에 이어 최종예선에서도 7승 2무로 무패를 달리며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예선 최종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손흥민이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대검도관 소속 동호인들이 ‘제38회 국제오픈 한국사회인 검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뒤 단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대검도관 제공〉

## 국대검도관, 국제오픈 사회인 검도대회 빛났다

### 배향화 우승·남자청년부 준우승

광주 국대검도관이 국내외 동호인들이 참가한 ‘제38회 국제오픈 한국사회인 검도대회’에서 여자청년부 개인전 우승과 남자청년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홍콩·아르헨티나 등 6개국에서 총 1천500명의 선수가 출전, 20대부터 70대까지 성별·연령별 부문으로 나뉘어 열띤 승부를 펼쳤다.

여자청년부 개인전에 출전한 배향화(국대검도관)는 결승에서 김민재(박연정검도관)를 2-1로 제압,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장년부 김정미(국대검도관)와 남자청년부 안보현(국대검도관)은 3위를 기록했다. 안보현·김우석·진명훈이 팀을 이룬 남자청년부 단체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길현 국대검도관 감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광주 생활체육 검도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 생활체육 검도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